

Market Trend of PET Film & Nylon Film

PET 필름 및 NYLON 필름 수급 동향

Writer

(사)한국포장협회

Contents

- I. 서론
- II. PET필름 수급 동향
- III. NYLON필름 수급 동향

I. 서론

(사)한국포장협회는 2018년 결산을 기준으로 SKC(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주)화승인더스트리, (주)효성 등을 대상으로 PET필름 생산수급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주)효성의 NYLON필름 생산 수급 동향과 함께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았다.

II. PET필름 수급 동향

최근 국내 PET필름 시장은 원재료인 PET칩 가격 하락으로 PET 필름 마진은 확대되고 있지만, 환경문제로 인해 플라스틱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고 중국, 일본, 대만 등 해외기업의 강세로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다.

더욱이 공급 과잉으로 인해 고순도텔레프탈산 가격이 전분기보다 16.8% 오른 톤당 948달러에 이르렀음에도 생산업체들이 판매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하며 매출은 꾸준하지만 영업이익은 바닥을 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최대 PET필름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는 SKC(주)는 1973년 선경석유로 출발해 1977년 국내 최초로 폴리에스터 필름 개발에 성공하며 비디오테이프, 플로피디스크, 레이저디스크 등을 출시, 우리나라 대표 필름기업으로 자리매김 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프로필렌옥사이드(PO), 폴리프로필렌글리

[표 1] PET필름 수급 동향

(단위: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SKC(주)	12	135,600	55,000	81,000
코오롱인더스트리(주)	9	87,600	36,000	51,000
(주)화승케미칼	2	15,000	4,000	12,000
효성화학(주)	3	56,400	5,600	50,000

코올(PPG) 등의 화학산업과 PET필름 등으로 영역을 넓혔다. 현재는 ▲포장, 디스플레이, 열수축, 태양광필름 등의 산업소재부문, ▲유탄제, 화장품, 가전제품 등의 화학부문, ▲반도체 부품 등의 전자재료 부문,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BHC부문 등으로 사업부문이 나뉘어져 있다.

그 가운데 포장이 포함된 산업소재부문은 회사 매출의 45%(2018년 기준 1조 2,686억)를 차지하고 있다. SKC는 12개 라인, 13만 6,000톤의 PET필름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출 5만 5,000톤, 내수 8만 1,000톤을 공급했다.

전문가들은 “SKC는 스페셜티 중심으로 제품 포트폴리오가 개선된 데다가 원료 가격이 하락해 지난해 대비 실적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

특히 SKC는 PET필름으로 만든 ‘에코라벨’을 통해 매출을

신장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필름기업들이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에 위축되는 것과 비교되는 행보이다.

SKC 미국 법인인 SKC잉크(inc.)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에코라벨’은 재활용 시 따로 라벨을 제거할 필요 없이 라벨에 찍힌 잉크만 지우면 된다. 이 라벨은 재활용 성능을 인정받아 미국 플라스틱재활용업체협회(APR)로부터 공식 인증을 받기도 했다.

SKC 관계자는 “친환경 소재와 잉크만 지우면 된다는 간편함에 글로벌 음료제조사 등 페트병 수요가 많은 기업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에코라벨은 북미 시장에서 연간 10~15%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 생산 규모가 크지 않지만 북미 소재 글로벌 기업과의 협의가 늘어나고 있어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시장에서도 관심이 커지

고 있지만 도입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적합한 잉크가 없고 국내 재활용공정에서 에코라벨이 작동하는지에 대한 검증 절차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SKC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친환경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에코라벨을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산업소재, 화학소재·필름, 전자재료, 패션·아웃도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최근 필름사업부문이 6년 만에 흑자 전환하며 영업이익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원료 가격 안정화 추세와 더불어 판매 물량 확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동사는 9개 PET필름 라인에서 연간 87,000톤의 필름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수출 3,600톤, 내수 5만 1,000톤을 공급했다.

전문가들은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고부가제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원료 가격 안정화, 중국 해주법인 가동률 상승에 따른 손익개선 등 생산설비 증설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포장용 필름 전문기업 화승케미칼은 OPP, PET, 통기성필름, EVA시트, 화학용품의 제조와 패키징상품 등의 판매업을 전개하고 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은 BOPP(이축연신폴리프로필렌) 필름으로 시장점유율은 20%에 달한다. 화승케미칼의 포장용 필름은 식품, 문구, 의류,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다.

2개 라인에서 1만 5,000톤의 PET필름 생산력을 보유한 화승케미칼은 지난해 국내시장에 1만 2,000톤, 해외시장에 4,000톤의 PET필름을 공급했다.

동사 관계자는 “최근 저가의 중국·인도산 수입필름의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원가 절감, 신제품 개발 등으로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효성그룹의 화학사업부가 분할된 효성화학(주)은 테레프탈산(TPA), PET필름, NYLON필름, 삼불화질소(NF3)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력제품은 프로판 가스에서 추출해 만든 PP다.

효성화학은 3개 PET필름 라

인에서 5만 6,4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에 5만 톤, 국외에 5,600톤을 공급했다.

현재 동사는 1조 4,000억 원을 들여 베트남에 대규모 화학공장을 설립하는 베트남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PP를 비롯한 플라스틱 필름류의 생산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효성은 총 60만 톤의 PP 설비를 구축해 2020년 초부터 양산화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그룹통합생산 기술센터를 출범시키며 품질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생산기술센터는 섬유·첨단소재·화학 부문의 핵심 공정 및 설비 기술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효성기술원,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소속의 핵심 기술 인력들로 구성된 4개 팀, 26명 규모로 구성되었다. 향후 생산기술센터를 통한 친환경성, 경제성이 강화된 신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III. NYLON필름 수급 동향

국내 NYLON필름시장은

(사) 한국포장협회의 회원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효성화학(주)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는 지난해 2개 생산라인에서 1만 톤의 NYLON필름을 생산, 이 가운데 수출 4,000톤, 내수 6,000톤 시장에 공급했다.

제이케이머티리얼즈 관계자는 “시장 상황은 예년과 비슷하다. 중국을 비롯한 해외 제품의 시장 공략이 계속되고 있어 국내기업들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신제품 개발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생산 원가를 낮추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판매량은 유지되지만 이익률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서 타개책을 모색 중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코오롱인더스트리(주)는 지난해 2개 라인에서 총 8,400톤의 NYLON필름을 생산, 수출용과 국내용 생산량은 동일하게 4,200톤을 기록했다.

코오롱 관계자는 “전체적인 NYLON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중국 기업의 강세로 어려운 상

[표 2] Nylon필름의 수급동향

(단위 :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코요롱인더스트리(주)	2	8,400	4,200	4,200
(주)효성	2	12,000	5,400	6,600
제이케이머티리얼즈(주)	2	10,000	4,000	6,000

황이다”라며 “중국 기업들은 저가격으로 거래를 맺은 후 서서히 가격을 올리는 영업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물량 공세가 심해 시장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그 결과 미주, 유럽 시장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 해

볼 만한 상황이 되었다. 향후 시장 전망이 좋지는 않지만 수출을 통해 돌파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식품 포장용, 제약용 등으로 쓰이는 NYLON필름 분야 국내 1위 기업 효성화학은 원료 중합에서부터 제품 생산까지 독자적 기술을 기반으로 해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2개 라인에서 연간 1만 2,0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수출 5,400톤, 내수 6,600톤을 공급했다.

효성화학 관계자는 “현재 중국 내 증설 라인이 가동 중으로 중국인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수요 신장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며 “2021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증설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 과잉 현상을 겪지 않도록 국내외 신규 수요처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EMBERS (사)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해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